

2016년도 인문자연탐사 보고서

-삶, 세종시를 탐구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탄생한 문제점

_세종특별자치시는 옳은 길을 따라 가고 있는가?

2016. 10. 22

김우주, 김재원, 김도현, 김서희, 김세훈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문제 해결을 위해 탄생한 문제점

—세종특별자치시는 옳은 길을 따라 가고 있는가?

김우주, 김재원, 김도현, 김서희, 김세훈

1. 탐사의 필요성

가. 배경 및 목적

1)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세종특별자치시

본교가 위치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산업과 연계하여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립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항목으로써 세종시의 설립 취지 및 역할을 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종시에 부여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게 된다면 국가의 다방면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요 정부기관 및 중앙행정부처의 일부는 현재 세종시로 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대규모의 정부세종청사는 세종시의 상징이 되었다. 이의 연장선에서 기대한 효과로는 수도권 인구 과밀의 해결이었다. 그러나 세종시와 관련하여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빨대 효과’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실이다.

본 탐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혼란 및 앞서 말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 1조에 근거하여 세종시가 당초의 목표 및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문 및 검증된 통계자료를 통해 그 여부를 확인해본다.

이 후, 세종시의 추후 개선 방안 및 가장 적합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국가적 책무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객관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교육과학 중심의 발전 및 투자의 중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는 출범 전인 2010년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도시’로의 변경 논란이 있었다. 이는 정당 간의 갈등 및 견제에 의해 부결되었으나 현재 세종시는 교육에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행복도시’를 비롯하여 세종시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요소는 우수한 교육환경이다. 세종시 내의 학교는 최신식 전자 교육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일명 ‘스마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세종시 뿐만 아닌 타 지역의 학부모들도 세종시의 교육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 또는 지역의 투자가 사교육과 같은

교육의 이면을 부각시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세종시 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학원가 현장 답사를 통한 현재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앞으로 세종시가 걸어야 할 바람직한 교육과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탐사 과정

가. 한국교원대학교 및 교육 박물관 방문

한국교원대학교는 매년 수많은 교사를 배출해내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곳을 방문함으로써 세종시가 추구하는 우수한 교육의 참뜻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교원대학교 내에 있는 교육 박물관에도 방문하여서 195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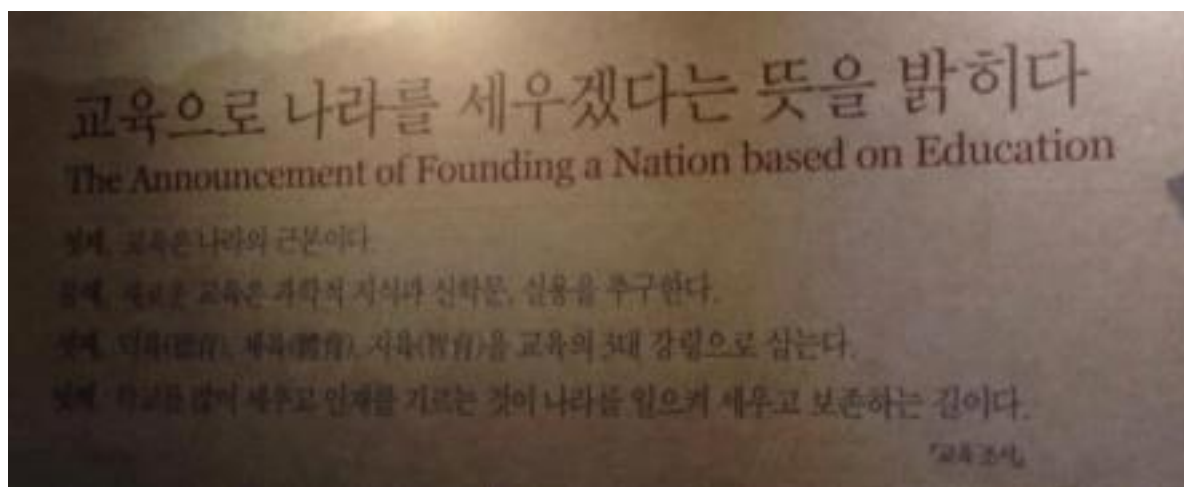


그림 3 교육박물관내의 교육의 중요성을 나타낸 글

세종시는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지어지는 도시, 세종시의 발전 과정은,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과 비슷하게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종시가 진정한 교육과학 도시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나?' 라는 의문점을 갖고 추후 계획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나. 세종시 교육 실태 조사를 위한 사전 답사

사교육이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성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아름중학교와 아름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해피라움을 구석구석 돌아다녀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가고 있었고, 많은 학원들은 학원 프로그램들을 줄을 지어 게시해놓았다. 이는 마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대치동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사교육 문제인데, 이 문제를 세종시가 안게 되는 것이 아

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이 올바르게 발전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척도 중 하나가 사교육 실태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다. 설문지 제작

본 탐구에서는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과밀 해결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고, 세종시의 두 번째 목적인 교육과학 중심의 발전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가지 종류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우선,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왔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을 배치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세종시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된 계기와 이전의 거주지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거주지 이전의 계기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항목들로 인터넷 조사를 통해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세종시 내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나이와 일주일에 다니는 학원 시간, 다니는 학원의 과목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만들었다. 1회 2시간 30분 1주일에 2회 기준으로 5시간 간격으로 문항에 대한 답안을 배치하였다.

인문자연탐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과학예능영재학교 1,2학년 재학생입니다.
 저희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교육과학 중심 도시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탐구과정을 시작 하였습니다.
 저희의 탐구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함께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체험활동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세종시, 이천의 거주지를 알려주세요.
 나. _____

▶다음은 세종시에서 거주지를 옮기는데 원 계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번 선택 가능)

☐ 직장이나 직장생활을 위하여
☐ 자 가족의 권유를 받거나
☐ 자의 교육환경을 위하여
☐ 다른 특별한 동기를 모르거나
☐ 기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연평균 재학생수	▶자녀가 배우는 과목의 종류 (복합 선택)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이하 (1-2학년)	<input type="checkbox"/> 0 시간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고학년 (3-4학년)	<input type="checkbox"/> 1-5 시간
<input type="checkbox"/> 중학교	<input type="checkbox"/> 6-10 시간
<input type="checkbox"/> 고등학교	<input type="checkbox"/> 11-15 시간
<input type="checkbox"/> 그 밖 기타 (직업, 대학원, 등)	<input type="checkbox"/> 16시간 이상

그림 4 설문지 1 - 일반인용

인문자연탐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과학예능영재학교 1,2학년 재학생입니다.
 저희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교육과학 중심 도시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탐구과정을 시작 하였습니다.
 저희의 탐구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학을 알려주세요.
 나. _____

▶자녀가 배우는 과목의 종류 (복합 선택 가능)

☐ 0 시간
☐ 1-5 시간
☐ 6-10 시간
☐ 11-15 시간
☐ 16시간 이상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연평균 재학생수 (복합 선택 가능)

☐ 수학 ☐ 과학
☐ 영어 ☐ 체육
☐ 음악 ☐ 미술
☐ 사회 ☐ 기타 _____

그림 5 설문지 2 - 학생용

초, 중, 고등학생들이 어떠한 학원을, 얼마나 다니는지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나이와 일주일에 다니는 학원 시간, 다니는 학원의 과목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만들었다. 1회 2시간 30분 1주일에 2회 기준으로 5시간 간격으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라. 일반인과 학생에 걸친 설문조사

위에서 제작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세종 호수공원과 해피라움, 그 인근지역에서 일반인과 학생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각 설문지당 30명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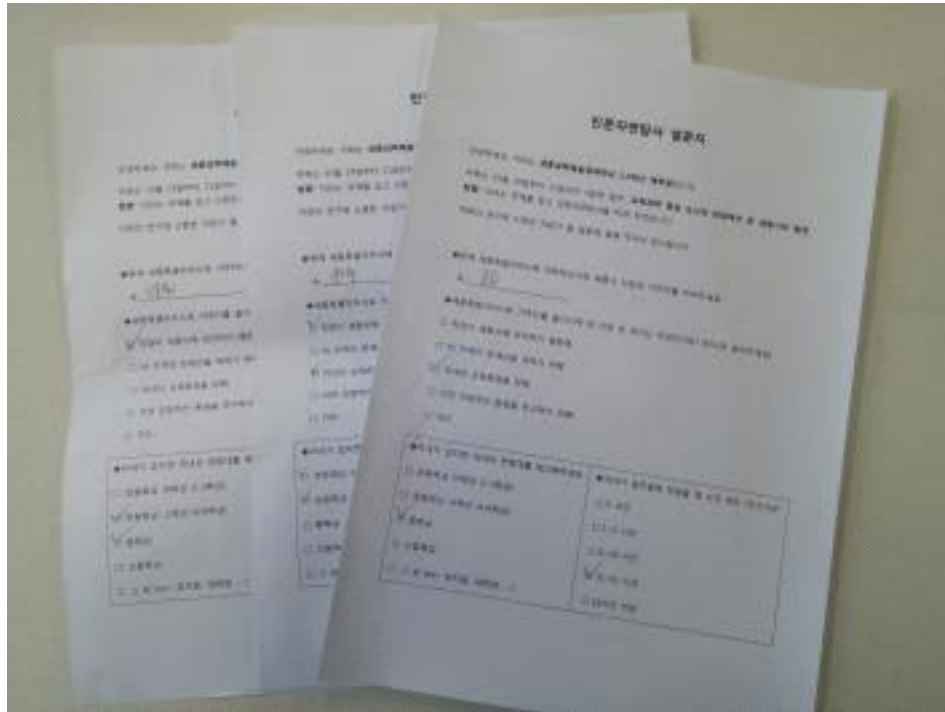


그림 6 설문조사서 결과



그림 7 설문장소 1: 세종 호수 공원
마. 일반인과 학생에 걸친 설문조사



그림 8 설문장소 2: 해피라움

세종시 내에는 두세 채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가

들에는 의료시설, 마트, 식당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은 학원 간판이다. 본 탐구 과정에서 방문한 아람동 해피라움 역시 수많은 개수와 다양한 종류의 학원이 모든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 학원가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수많은 학원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한 분위기 형성을 완화시키는 것 또한 일차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림 6 해피라움의 학원가

3. 탐구 결과 및 결론

가. 통계자료 및 설문결과

1)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세종특별자치시

ㄱ. 국토해양부 통계자료

구분	대전	경기	충남	충북	서울	기타	계
인구 수	55,200	27,486	21,948	21,332	21,127	58,024	205,117

표 1 세종시로의 전입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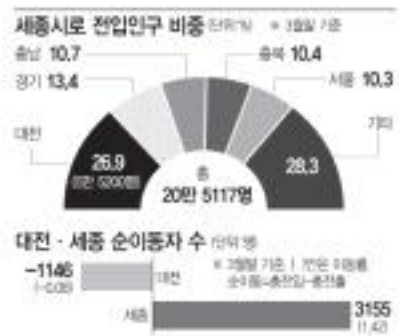


그림 12 세종시의 전입인구 비중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대전 지방에서의 인구유입률이 서울, 경기 지방에서의 인구 유입률을 웃돌고 있다. 서울, 경기 지방, 즉 수도권의 인구를 흡수하여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할 세종시가 오히려 주위의 대전, 충청도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인구 집중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전 지방의 인구에 비해 서울, 경기 지방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감안하면 전체 수도권 인구 중 세종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비율은 대전보다 더욱 작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종시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수도권 인구 흡수’라는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 설문조사 결과

분류	이전 거주지		이사 이유		자녀 연령		자녀 학원(시간)	
내용	대전	10	직장	10	초등 저학년	0	0	1
	서울	5	전세난	1	초등 고학년	6	1~5	5
	조치원	3			중학생	8	6~10	6
	청주	1	교육	6	고등학생	3	11~15	4
	오산	1	자연환경	3	기타	9	16~	0
	공주	1	기타	1				

표 2 세종시 시민을 바탕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먼저 ‘이전 거주지’ 항목을 보았을 때 대전, 조치원 등 세종시 주변 지방에서의 인구유입률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유입률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사 이유’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직장이었다고, 그 다음을 교육이 따랐다. 자녀 연령은 중학생 이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2) 교육과학 중심의 발전 및 투자의 중심, 세종특별자치시



그림 14 이전 거주지의 비율



그림 13 이사 온 이유의 비율



그림 15 많은 학원과 간판

학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건물마다 학원이 최소한 하나씩은 있었으며, 대부분 수학, 영어 등의 학원이었지만, 예체능 학원도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였다. 특히 ‘강남어학원’ 등의 상호에서 드러나는 것 중 하나는 아직도 학원에서는 서울을 선망한다는 것이다. ‘서울에서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대치동 시스템, 강남 시스템을 비슷하게 답습한다면 그 문제점마저 그대로 들여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현재 교육의 악순환이 유지되고, 교육 방면에서 뾰족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분류	일주일에 다니는 학원 (시간)		다니는 학원의 과목 (명)	
내용	0	2	영어	25
			수학	24
	1~5	8	체육	8
			과학	7
	6~10	8	국어	6
			음악	6
	11~15	9	논술	3
			사회	2

	16~	4	미술	1
--	-----	---	----	---

표 3 학생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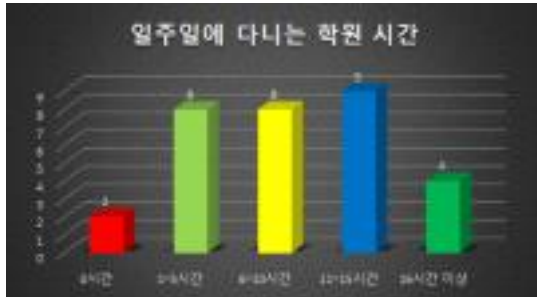


그림 17 학원 다니는 시간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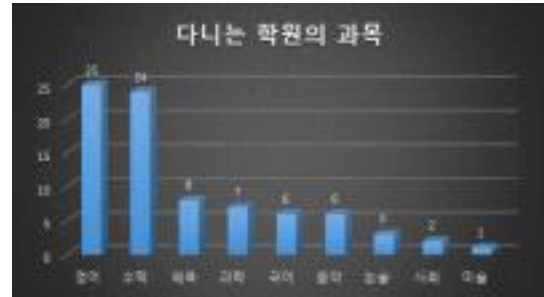


그림 16 다니는 학원의 과목 분포

나. 상가 내의 학원 개수 및 종류 조사

설문조사를 진행한 아람동 주위를 돌아다니며, 상가 내에 어떠한 종류의 학원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알아보았다. 도시환경 과목에서 수행한 김민석 학생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학원을 종류별로 분류한 뒤, 그 개수를 세 보았다.



그림 18 상가 현장 답사 결과 상가 내의 학원의 과목 종류



그림 19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과목 종류

그 결과, 근처 상가 내의 학원의 분포와 종류가 실제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의 과목 종류와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주변 사교육 시장과 학생들의 수요가 매우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제언 및 해결방안

가. 문화시설간의 연계성 필요

설문과 통계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수도권 인구 과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더불어 흡수한 인구수는 수도권 지역보다 인근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의 인구를 받아낸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이러한 부분은 수도권 인구과밀의 해결을 위해 마련한 방안이 주변 지역에 ‘빨대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 세종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정부기관의 이전뿐만 아닌 다른 인구 이동 요소를 마련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문화시설간의 연계성 부족이다.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지만, 서울이 명동거리 등 유명한 거리와 다르게 연계성 없이 하나의 시설로만 존재할 뿐이다. 연관관계가 없는 문화시설은 랜드마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아직 건설 중인 도시이다. 현재의 문화시설들 사이에 연관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건축물을 짓는다면, 랜드마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위기상태

체계적인 활동과 유익한 시스템을 갖춘 공교육의 강화가 진정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그러나 교육의 발전에 따른 사람들의 관심은 사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설문을 통해 보면 아직까지 사교육 실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상가를 살펴보면 과하게 많은 수의 학원이 존재. 상가의 고층 부분은 대부분 학원이 차지. 거대한 크기의 학원 홍보 문구 및 간판이 압도적으로 시선을 뺏고 있다. 이러한 세종시 내 상가 학원의 과밀은 사교육의 열을 더 올리는 가능성을 부여하며, 사교육을 도모하는 분위기 조성 가능성 잠재. 추후 사교육의 실태가 걱정되는 부분이다.

교육은 지역의 발전을 넘어서 국가의 발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세종시의 행복도시의 비롯한 교육과학 중점적인 발전은 먼 미래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도와 방향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 보인다.

세종시는 아직까지 대치동처럼 사교육에 이른바 ‘찌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신설 도시인 만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방과후 학교를 들어본다.

세종시는 이미 현재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따로 포털사이트를 운영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부터 어느정도 배제 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 영어 등 학생의 학업적 능력향상에 필요한 과목들에 대한 많은 지원, 훌륭한 선생님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보인다.

5. 활동 후기

1204 김우주 : 총 3일간 10월 19일, 20일, 21일에 걸친 인문자연탐사로 다양한 것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실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나는 세종시의 설립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교육·과학·연구 중심 도시’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이를 직접 발로 뛰어가며 세종시의 현 주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연구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 조사, 그리고 직접 세종시 시민 분들을 호수공

원, 정부청사, 도서관에서 만나 뵙고 일일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60명가량의 세종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한 번에 말 걸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때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점차 쌓아지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주면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진행 중에 발생한 돌발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면서 문제 해결 능력 또한 기른 인문자연탐사 활동이었다.

1205 김재원 : 세종시는 ‘서울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만들어진 도시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료조사를 하면서 기존의 계획을 버리고 교육 중심의 도시로 변모하는 계획이 진행중임을 알게 되자,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었던 지방의 인구 분산은 어디로 가고 지방의 서울, 즉 지방에서의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인구의 이동과 학생들의 학원 생활에 대해 대략적이거나 알게 되었는데, 과연 교육 중심의 도시가 어떻게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지 지켜보고 싶어졌다.

2203 김도현 :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해 3일 동안 직접 탐사하며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탐사를 시작하였으나, 비판적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탐사를 다니다보니 또 다른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존의 문제점과 새로 발견한 문제점을 연관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점을 직접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2204 김서희 : 본교가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을 찾는 과정에서부터 주변에 대한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느꼈으며, 세종시에서 생활한지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알지 못했던 세종시의 많은 부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 후 3일동안 직접 탐사를 다니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종시를 거닐었고, 세종시민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한 일정 또는 예상대로만 탐사를 진행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힘들었다.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에 호수공원, 홈플러스와 같이 시민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한 장소에서 설문대상을 찾을 수 없어 애를 먹었으며, 설문대상에서 용기를 내 다가가면 불친절한 대답에 당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생각한다. 이번 인문자연탐사를 통해 우리가 인식한 문제점이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문제점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에 수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고 지속적인 고민과 탐구 끝에 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2205 김세훈 :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보고, 세종시의 교육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세종시라는 도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6. 참고 문헌

- ▶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58>
- ▶ 변창흠,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세종시의 의의와 발전과제’